

# 전주시, 민생경제 활력 '온 힘'

###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화훼농가 꽃 사주기 운동 등 전방위 지원 펼쳐

전주시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시작한 데 이어 '꽃 사주기 운동'과 하도급 확대, 스포츠용품 후원 등 전방위 지원을 펼친다.

전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 등으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극복하기 위해 지난 달 20일부터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10만~30만원을 미리 결제하고 나중에 쓰는 착한 소비 운동인 이 캠페인은 돼지카드 혜택이 한시적으로 20%까지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동참이 연일 늘어나고 있으며, 오는 3월 31일까지 계속된다.

시는 졸업식과 입학식 등이 취소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도 돕고 있다.

지난 1일과 2일 시청과 양 구청, 사업소를 대상으로 이동장터를 열고 1테이블 1플러워 운동을 통해 총 700여 만원 상당의 꽃을 주문받아 판매했다.

국내·외 각종 대회와 체육행사의 취사로 직격탄을 맞은 스포츠 업체 소상공인도 돕는다. 초·중·고 28개 학

교, 13개 종목, 30개팀, 479명에 지역 스포츠용품을 후원한다.

시는 공공부문 신속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데에도 힘쓰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 지역 내 동네마트와 입점 협약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3월 31일까지 공영주차장 17개소를 최대 1시간까지 무료로 개방해 그간 방문객들에게 주차장 이용 할인권을 제공해야 했던 소상공인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등 틈새 지원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144명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방역일지리를 제공해 경제적 안정을 돕기로 했다.

여기에 시는 지역건설업체의 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주택 등 민간 대형 건축공사 14개소에 대해 지역하도급 계약을 70% 이상, 지역자재를 80% 이상 쓸 수 있도록 시공사 면담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위기에 봉착한 시민들을 위해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마음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시민들의 우울증과 불안감 등을 해결하기 위해 명상·원예·예술치유 프로그램과 함께 감정코칭, 심리극, 영화치료 등을 제공한다.

입대료를 내지 못해 퇴거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희망할씨 긴급 순환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돕고, 긴급임대료와 이사비, 주거관리비를 지원한다.

시는 이와 함께 금융복지상담소와 푸드뱅크, 사회복지관, 전주복지재단, 전북은행, 분야별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민·관 거버넌스형 총괄 기획단을 구성해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위기일수록 빛나는 전주의 지력을 바탕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사각지대 없이 모든 시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전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5일까지 주요 도로변과 역·터미널 주변, 기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불법광고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차량과 보행에 불편을 주는 이동광고물 정비를 강화하고 청소년 유해 내용을 포함한 폐쇄적 이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완산·덕진구청에 꾸려진 18명의 정비반은 주간은 물론 야간과 공휴일에도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주요 정비대상은 ▲불법현수막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입김판 등 이동광고물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해광고물 등이다.

단속 과정에서 불법광고물을 적발할 경우 즉시 수거 조치하는 한편 아파트 홍보·재개발 관련 현수막 등 상습적

으로 다량 게첩·배포된 불법광고물 광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보행·교통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해 공휴일과 취약 시간 대에도 정비에 나설 것"이라며 "관광 거점도시 전주에 걸맞은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전주시는 봄철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시는 산불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초동 진화태세를 확립했다. 산불감시 업무를 수행할 산불감시원 63명과 산불전문진화대 61명, 산불기계화진화대 23명 등 산불감시 근로자 총 147명이 취락지와 거점 지역에 배치됐다. 여기에 산불진화 임차헬기 3대, 산불 진화차량 5대와 드론 6대 등 39종, 4,055점의 진화장비도 갖췄다.

특히 산림청 산불상황관제시스템과 연계돼 산불신고와 현장 네비게이션 기능을 갖춘 GPS 단말기 62대가 보급됐으며, 산불감시 카메라와 드론을 적극 활용에 빈틈없는 산불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시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시내버스승강장 버스정보시스템(BIS)을 이용해 홍보하는 한편 확산, 행차봉, 건지산 등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산불예방캠페인도 벌이기로 했다. 캠페인을 통해 ▲인화물

질 안가지고 다니기 ▲취사행위 안하기 ▲담배피우지 않기 ▲쓰레기 피가 제거기 등을 알리게 된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해 봄은 예년보다 기온이 높은 편이고 강수량도 다소 적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대형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시 정원도시자연순환본부 관계자는 "등산, 산림휴양 등 산에 오를 시에는 기본적인 산불예방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면서 "산에서 연기 및 산불 발견 시에는 즉시 전주시 산림부서나 소방관서(11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가 농사 규모는 작지만 강한 경쟁력을 갖춘 지역 농업인을 육성한다.(전북 강소농 우수상품전 모습)

## 전주농기센터, 신규 강소농 농업경영체 모집

### 28일까지 농기센터 농업기술과 방문·우편·이메일 접수

전주시가 농사 규모는 작지만 강한 경쟁력을 갖춘 지역 농업인을 육성한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는 지역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득 향상을 돕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2021년도 신규 강소농 농업경영체'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전주시 농업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달 실시되는 경영개선실천 기본교육(4시간)을 이수하면 강소농으로 선정

될 수 있다.

시는 선정된 강소농을 대상으로 ▲생산·유통 비용절감 ▲농산물 품질개선 ▲직거래를 통한 고객 확대 ▲브랜드 개발 가치향상 ▲마케팅 역량 강화 등을 주제로 한 경영개선실천교육을 8회에 걸쳐 지원하며, 분야별 컨설팅과 홍보기회도 제공한다.

신청서는 전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덕진구 원장동길 111-17)로 방문·우편 제출하거나 이메일(gilksy@korea.kr)로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강소농 육성사업을 펼쳐 364명의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었으며, 헤미강진통발효식품(전통장류), 푸드네이처(여주영양발효), 옥전농산(미곡, 잡곡), 전주레인보우팜(딸기수확체험) 등을 발굴·육성했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경영체의 역량을 강화해 지속적인 소득 향상을 돕는 강소농 육성사업에 농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며 "지역의 농업인들이 전국적인 우수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스마트관광 플랫폼' 구축 나선다

### 사용자 중심 맞춤형 관광정보·ICT 기술 접목 관광콘텐츠 등 제공

전주시가 가상현실에서 랜선여행을 즐기고 나만의 맞춤형 여행코스도 만들어보는 사이트를 개발한다.

시는 오는 5월까지 총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전주시 스마트관광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관광거점도시에 걸맞은 관광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스마트관광 플랫폼은 사용자 중심의 연계형 맞춤형 관광정보와 ICT 기술을 접목한 관광콘텐츠를 제공하고,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 다국어 홈페이지로 구축되는 게 특징이다.

플랫폼은 ▲전주이야기 ▲시대를 담은 문화유산 ▲재생, 다시피움 ▲경고 싶은 거리 ▲전주가 차려낸 한 상(먹거리) ▲얼수 한바탕 전주(전시·공연) ▲전주의 숨겨진 전주의 맛과 멋, 명소를 한눈에 만나볼 수 있도록 구성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드론항공촬영과 VR(가상현실) 등을 활용한 가상투어가 제공된다. 가상투어에서는 전주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한옥마을 천년 야경과 한옥마을 골목길, 경기전, 웨리단길, 객리단길, 동문거리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또 지도 기반 서비스를 통해 '나만의 맞춤형 여행코스 만들기'도 지원된다. 여행코스를 직접 만들고 코스별 이동 경로와 시간을 예측할 수 있어 일정과

비용을 산출하는 등 여행 시 가이드북으로 활용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공방에서 전주까지 교통수단별 정보와 시내버스와 택시 등 소요시간을 안내하고, 공연과 전시를 예약·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도 구성키로 했다. 또 전주만의 관광 상품을 해외로 배송할 수 있는 서비스도 넣기로 했다.

나아가 시는 플랫폼에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 전주의 관광정책과 상품을 개발하는 데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전주시 신성장정책국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반영해 비대면 관광콘텐츠와 ICT 기술을 융합한 플랫폼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기존의 서비스와는 다른 역동적이고 정감 있는 실감형 콘텐츠를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